

다이이찌보 - 최신 결속방기를 배로 증설

다이이찌보의 규슈(九州) 구마모토현(熊本縣)에 있는 아라오(荒尾) 직영공장은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10여대의 결속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결속방사(結束紡絲)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이 결속방사는 ①실에 잔털이 거의 없고, 외관이 반들반들하며 ②땀을 잘 빨아들이고(吸汗), 빨리 마른다(速乾性) -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어, 최근 신 사용이나 부인용 내의 소재로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다이이찌보는 작년(2001년)에 개최된 소재전에서 1998년에 도입된 최신형의 잔털 낚히는 장치가 달린 결속방기로 뽑은 실이 잔털이 적어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최신 결속방기를 한 대 더 도입하여 월 생산능력을 40수 단사로 환산하여 종전의 두 배인 10톤이 되었으며, 금년 들어 주문량이 급증하여 완전가동체제로 계속 생산하고 있다.

이 최신 결속방기에서 생산되는 실의 품질은 가동 초기에는 불안정하였으나 전방(前紡)공정을 보완하여 안정시키고, “클리어·코트”라는 브랜드로 상품화하였다. 이 실은 봄·여름철용 내의 소재로서 7·9월 성수기를 겪은 지금은 내년을 위한 비축(備蓄)생산기로 비교적 한가한 시기임에도, 금년에는 벌써부터 내년 봄·여름 상품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여 비축기간에도 본격적으로 생산해야 할 것 같다. 다이이찌보는 “클리어·코트”의 80% 정도를 천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만을 실로 판매하고 있다.